



변화와 변질

변화와 변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변화는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반면에 변질은 원래의 모습과 달리 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변질이라 합니다.

누군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두 개의 그릇에 빗물을 담아 두고 하나는 그냥 두고 하나는 개구리 한 마리를 넣어 두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물만 담아둔 그릇에는 이물질이 끼고 점점 변질되어갔는데 개구리를 넣었던 물은 변질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구리가 움직이면서 물을 계속 움직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활기차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공동체는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오랜 타성에 젖어 해오던 것만 고집하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공동체에도 신앙생활의 변질이 일어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수많은 신앙생활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은 변화와 변질 중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을까요?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합니다.

26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움에 싸여 소리만 질러 됩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에 제일 먼저 응답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체면이나 눈치 보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제일 먼저 주님 말씀에 반응합니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28절)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남다른 삶을 사는 은총을 누리다는 것입니다. 그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베드로는 배 안에 머물러만 있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새로운 은총을 누리기 위해 모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가톨릭이라는 편안한 배 안에서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착한 신자들과의 친교, 안정된 교회 환경과 가톨릭이라는 배경, 안정된 배 안에서 적당히 머물러 신앙생활을 누립니다. 개신교처럼 배 밖(세상)으로 더 나아가는 것은 내 품위 유지에 부담거리입니다.

그래서 29절 주님께로 “오너라.” 1독서 11절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라는 주님 말씀에 머뭇거리거나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려 하니 내 삶에,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은 흔들리는 배 안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배 안에 가만히 있기보다는 물 위라도 걸어서 주님께 가고자 하는 고백을 주님께 드릴 때입니다. 베드로처럼 “오너라”고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너라”는 주님 말씀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함으로 변화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을 누리시다.



임성진 요한 신부 | 서포선교본당 주임

주일 진레

제 1 독 서

1열왕 19,9-11-13

화 답 송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제 2 독 서

로마 9,1-5

복 음

마태 14,22-33

참된 행복

허태범 요셉 수필가/ 가톨릭문인회

행복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과 '어느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라고 한다. 그 어느 정도라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으나 건강과 경제적 기반이 행복을 느끼게 하는 여러 요소를 받쳐주는 기본이 된다는 게 보편적인 생각인가 보다. 자아실현, 성취감 같은 기준들도 있으나 그 성취감이라는 것도 물질적 이익이 수반되어야 느낄 수 있다고 하니 경제적 능력은 절대적 기준으로 보이기도 한다. 건강과 어느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행복의 기본이라고 믿는 이들은 오늘도 예수님 앞에서 건강, 취업, 승진, 사업의 번창 등을 청하고 찾고 두드리며 빌고 있다.

그러면 그 행복의 기본 조건이란 걸 갖고 싶어 하는 이들이 빌고 있는 그 예수님은 행복하셨을까? 모든 기준과 목표가 물질적인 이익에 있는 이 시대에 시대와 동떨어진 산상설교의 행복관을 내세우시는 예수님은 이 시대를 설득할 수 있을까?

지난주 복음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민족의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를 불러놓고 해처럼 빛나는 얼굴로 빛처럼 새하얗게 변한 옷을 입고 천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투영된 듯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셨다고 한다. 제자들이 보기에 어찌면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주실 위대한 스승님'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 위대한 스승님이 일신상에 안락함을 줄 재물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참새도 가지고 있는 동지조차 없어서 머리 누일 곳조차 없이 살다가 결국 자신을 따르던 이들에게 고발당해 비참하게도 사람들 앞에서 옷 벗김 당하고 매질 당하고 종국에는 벌겨 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일부 물려받아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떨치더니 각자 순교의 길을 걸었다고 한다.

이거 정말 잘 생각해야 할 듯하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마태 19,21) 하시니 부자 청년이 슬퍼하면서 떠나갔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 청년 따라 슬그머니 떠났어야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 시대의 행복관에 따라 저 구약시절 야곱에게 내리신 축복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내려달라고 청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지니시지 않았고 그런 걸 주실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무당집을 찾았는데 무당이 시킨 대로 한 후 사업이 번창하자 교회를 접고 그 무당집을 교회 다니듯이 드나든다고 한다. 참으로 노선이 명확한 사람이라 생각했었다.

이제 다시 한 번 결정해야 한다. 현세적 행복을 찾아 떠날지. 진리를 따라 참된 행복을 추구할지 내 신앙적 노선도 명확히 해야겠다.



세례성사와 교회법 (1)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 명례성지

Q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 ▶ 교회법에서는 “아직 세례 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만이 세례 받을 수 있다.”(864조)라고 말합니다. ‘가톨릭(보편적)’이라는 이름답게 성별과 인종과 국적과 종교와 나이와 생활수준과 건강함과 죄의 유무 등 어떠한 조건의 차별 없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세례를 받을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른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을 의사를 표시하고 신앙의 진리와 그리스도교인의 의무를 충분히 배우며 예비신자 기간을 통하여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인정받아야 세례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865조 1항) 그러나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은 신앙의 주요한 진리(천주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벌악)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고, 세례 받을 의사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표시하여 그리스도교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865조 2항)

Q 세례를 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 ▶ 교회법에서는 “부모는 아기들이 태어난 후 몇 주 내에 세례 받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아기의 출생 후 되도록 빨리 혹은 출생 전이라도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가서 자녀를 위한 성사를 청하고 이를 합당하게 준비하여야 한다.”(867조 1항)라고 말합니다. 비록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더라도 아기의 부모와 대부 대모와 교회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지적 장애를 가진 어른의 경우에도 유아세례와 마찬가지로 교회공동체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종교는 자유니까 아이가 커서 스스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세례를 미루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자녀들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뿐만 아니라 윤리적, 종교적 교육도 힘껏 돌보아야 할 가장 중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1137조) 누구보다도 신앙 안에서 말과 모범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여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알아가도록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Q 반려동물도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 ▶ 농담 같은 질문으로 들리지만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종종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교회법에서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864조)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돌봄, 교육, 미용, 병원, 장례 서비스가 잘 되어있는 만큼 교회 안에서도 반려동물을 위한 혜택들을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동물들도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가치를 존중받고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동물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같은 것으로 여긴다거나 동물의 혼과 인간의 영혼을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성사와 미사와 장례 등 교회의 전례는 인간 영혼의 구원을 위한 예식임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는 동물에게 세례를 베푸지는 않지만 동물을 위한 축복 예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과 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즐겁게 복음화의 밑거름이 되려는 대방동성당

황광지 가타리나

대방동 신자들은 미사 전에 본당주보성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를 부른다. 본당 공동체를 위해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라고 간구한다. 지난해부터 백남해 요한보스코 주임 신부는 기도문을 만들어 함께 바치게 하며 본당주보성인을 인식하게 했다. 무심하게 지내던 신자들은 ‘본당의 성인’을 깨닫게 되었다. 본당 설립 23년이 되었고 곧 25년을 맞게 될 때에는 기도문 뒤의 상본으로만 보는 성인을 조형물로 세우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기쁘고, 즐거움 한가득

운동권 사제가 부임한다고 좋아 있던 신자들은 의외의 역동적인 주임 신부의 태도에 긴장이 확 풀렸다. 번쩍이는 순발력으로 주위를 사로잡는 유쾌함에 분위기가 솟아났다. 결정적인 것은 지난해 본당의 날 행사로 지세포 성지순례를 갔을 때라고 김형수 프란치스코 부회장이 자랑한다. 프로그램 기획과 게임 사회까지 어찌다 주임 신부가 맡아 전체 신자들의 친목과 화합이 아주 진하게 이루어졌다. 그동안 코로나로 숨죽였던 가슴들이 웃음으로 마구마구 활짝 열렸다. 신 체칠리아 수녀는 올해 부임한 탓에 겪어보지 못한지라 손꼽아 본당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제기차기를 딱 한 번밖에 못 차서 소문이 파다했던 보좌 신부도 만회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신자들도 또 한바탕 즐길 올가을 본당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성모상 앞 환경을 좋게 만들었다. 좁은 마당이라 주차로 인해 접근이 쉽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장의자를 여럿 놓고 성모님 가까이서 기도할 수 있게 했다. 성모의 밤에서는 꽃 대신 리본을 봉헌하며 모은 돈으로 말라위의 우물을 파는 데 후원했다. 올해 성모의 밤에서도 꽃 대신 기도메달을 봉헌하고 남은 돈은 필리핀 반올림공부방을 도왔다. 그때 봉헌한 기도메달은 올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태울 계획이다. 또 자선골프 대회도 열어 생긴 천오백만 원은 베트남 까마우성에 사랑의 집 10채를 짓도록 후원했다. 본당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곳도 여러 곳이지만, 더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찾아 사랑을 전하는 일에 기쁘게 나섰다.



시노달리타스 실현하는 사목

주임 사제는 교황의 바람에 따라 ‘함께 가자’고 한다. 신자들이 자율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제일이다. 그래서 올해는 1인1단체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몇몇 사람의 힘이 아니라 다양한 힘이 합쳐져야 함을 앞세운다. 안후상 빅토르 회장도 함께 사랑하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하며 일한다. 각 분과에서 의견을 내어 서로 존중하여 합의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흐뭇하다. 레지오에 선서하는 한 명이 있어도 성당이 시끌벅적하게 격려하고 축하하는 소리가 오고 가니 참 즐겁다.

작은 힘이라도 함께하려고, 주일 차봉사는 ME부부가 맡아 하지만 마지막 주에는 청년들이 맡아 주인정신을 키운다. 하비에르 선창단도 만들었다. 주일미사에는 성가대가 있지만, 평일미사나 장례미사에는 한 사람이 마이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10여 명의 선창단이 앞자리에 앉아 전례를 원활하게 돕는다. 주보에 일자별 축일을 알뜰히 게재하여, 축일을 맞은 신자에게는 초를 선물하며 축하한다. 김춘옥 사무장은 큰 것이 아니라도 축일 선물을 준비할 때나,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축하를 받을 때 바라보면 기쁨이 넘친다.

대방동본당은 가음동성당 주도로 성당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하여 1999년 12월에 봉헌식까지 치른 후, 2000년 1월에 설립되었다. 그리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전임 사제들의 사목에 힘입어 큰 규모의 성당이 되었다. 본당 출신 사제도 최승호 메다르도 신부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해 남하늘 엘리시오 신부가 탄생해서 신자들의 자랑이 되었다. 이제 25주년을 바라보며 타임캡슐, 주보성인상 설치, 25명 장학금 마련 등등과 같은 의견을 서서히 조금씩 내놓고 있다. 사목위원들의 논의를 거치고 신자들의 뜻을 수렴하여 함께 만들어가려고 한다.

경계를 넘어

계장준 요한 보좌 신부는 서품을 받고 첫 부임한 이 성당에서 온갖 경험을 했단다. 처음 유아세례를 베풀 때 말할 수 없는 큰 감동을 느꼈고, 지난 일 년 동안 모든 성사를 집행하며 본당사목을 알게 되었다. 주임 신부를 따라 병자방문에 갔다가, 갑자기 세례가 진행되어 선택의 여지없이 그 병자의 대부까지 선 경우도 있었다. 60명에 가까운 초중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에 참여하도록 고민하면서 두 번째 여름캠프를 진행했다.

앞서도 글로벌한 자선을 언급했지만, 종교를 초월하여 성주사와는 교류를 많이 가졌다. 지난가을 성주사 산사음악회에 본당 성가대가 출연하여 환호를 받았다. 신자들은 절에서 차 만드는 과정을 체험하고, 초파일에는 초대를 받아 절밥도 먹었다. 본당에서는 부활계란을 만들어 관공서나 학교에 전달하면서, 성주사에는 많은 양을 나누었다. 서로 열린 마음으로 좋은 관계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구역별 소공동체 모임을 위해 사제관을 개방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도 밖에서도 모이기를 꺼려하는 신자들이 사제관에서 모이게 되었다. 신자들은 편리했고, 사제는 부임하여 신자나 구역상황을 파악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 아직도 코로나 전의 신자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구역부에서는 재복음화를 위해 쉬는 교우에게 편지, 기도문, 대방동성당 문패, 팻티슈 같은 것을 담은 종이백을 마련하여 전달했다. 꼬미시움 차원에서 레지오 단원들은 선교를 위해 등산로 입구에서 종이백을 들고 기다렸다가 내려오는 분들에게 성심껏 전달했다.

백남해 주임 신부는 신자들에게 “여러분은 할 일을 다 했습니까?” 하고 묻기도 한다. 풀죽어 고개를 숙이는 신자들에게 또 말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했으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하십니다.”



▶ 교구/본당

교리교사 하계폐정

일시: 8월 19일(토)~20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8월 가나혼인강좌

일시: 8월 20일(주일) 13:00
장소: 교구청

▶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체나폴로 다락방 8월 기도모임

일시: 8월 21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2층 성당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 준비
버스시간표: 가슴자이(10:50)-반송(11:00)-
시티(11:06)-현대주유소(11:16)-
구 교구청(11:40)-교구청(12:10)
문의: 회장 010-9399-5454

도박문제로 힘드십니까?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매(주일) 17:00/ 장소: 월남동성당
문의: 010-9992-3443(Mr.정)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중독),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통영시 보건소 옆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1층)
카페: cafe.daum.net/6407795/ 인스타: tygapok
문의: 055-640-7795/ ★일시보호센터 운영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기 타

4050 신앙대회

일시: 8월 20일(주일) 10:00~17:00
장소: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한국본부 대경당(부산)
주최: ICPE 선교회,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한국본부
문의: 010-2289-6150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디비나 (성독)

일시: 8월 26일(토) 10:00~16:30
장소: 부산 분도명상익집
준비물: 성경/ 참가비: 3만 원
문의: 010-3271-0766(권 벨라벳다)

2024년 양업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양업고등학교는 지성, 인성, 영성의 삼위일체
교육을 하는 Quality School입니다.
양업의 27기 가족을 모집합니다.
원서접수: 9월 4일(월)~22일(금)까지
▶“홈페이지->입학안내->전형요강” 확인
문의: 043-260-5076

청주교구 성령대회

일시: 9월 16일(토) 09:00~17:30
장소: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강사: 김웅렬 신부, 한연홍 신부, 오웅진 신부
찬양: 고영민 안드레아 찬양팀
문의: 043-213-9103, 010-4400-1344

가톨릭관동대학교 2024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

접수: 9월 11일(월)~15일(금)
모집: 의과대학, 헬스케어융합대학, 사범대학,
트리니티융합대학 등
※가톨릭계고교 학생, 신자를 위한 특별전형
운영 및 장학금 지원

문의: 033-649-7000

예수회 특별강좌 (10주 과정)

일정: 9월 13일(수) 개강
매주 수요일 동영상 링크를 E-메일과
문자로 발송
주제: 소명, 희생, 각성-마크 샤갈의 '창세기 12~36장'
묵상
강사: 배철현 교수
문의: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나자렛 예수 수녀회 피정

피정: 개인 피정 및 전례 피정
장소: 본원 피정의 집(경남 창원군 성산면 운봉길 25-12)
문의: 010-4686-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수) 14:00~20: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2층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문의: 010-3551-2038

교구 평협에서 알립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건강에 취약한 어르신들
이 코로나19에 많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부득이
창원성심원공소 방문은 중단합니다.
공소 순례를 하시는 분들은 그 외 공소의 순례는
계속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창원파티마병원 수녀원 주방 직원 모집

모집: 파티마병원 수녀원 주방 근무자 1명
접수: 8월 20일(주일)까지
문의: 파티마병원 055-270-1968,
010-7208-5113
▶면접일자 및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8월 14일(월)		교구 기도회입니다.			010-5247-9900
청년	매주(수) 19:30	가톨릭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8월 19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살레시오회	8월 20일(주일)	창원 젊음의 집	유명일 신부 010-6221-3520	대상: 중1~35세 이하 미혼 남성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령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트래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절,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 10월 16일 출발 남스페인과 모로코 순례 13박 14일-495만원 ■ 10월 16일/ 11월 6일/ 12월 4일 출발 나카사키 순례 3박 4일-125만원 bora (주)보나투어 02)732-4578 www.bonatur.co.kr
--	---	--	--

2023-2학기 교구 성경공부 일정

마산지구			
본 당	개 강 일	과 정	과 목
가톨릭 문화원	8월 29일(화) 10:00	일반	루카 복음서·사도행전
구암동	8월 28일(월) 19:30	일반	루카 복음서·사도행전
산호동	8월 31일(목) 20:15	일반	요한 복음서
상남동	8월 30일(수) 14:00	지혜	루카 복음서
양덕동	8월 28일(월) 10:00	은빛	요한서간과 요한묵시록
	8월 28일(월) 19:30	일반	마르코 복음서
영 산	9월 1일(금) 10:40	은빛	요한 복음서
월 영	8월 29일(화) 10:00	일반	오경2(탈출기)
	8월 30일(수) 20:10	일반	오경1(창세기)
월남동	8월 31일(목) 20:00	일반	마르코 복음서
의 령	8월 30일(수) 10:30	지혜	역사서3(열왕기)
	9월 2일(토) 19:30	첫걸음	복음서와 사도행전
진 동	8월 28일(월) 19:30	첫걸음	구약1(오경과 역사서)
창 념	8월 31일(목) 10:00	일반	마르코 복음서
칠 원	9월 1일(금) 10:40	지혜	역사서1(여호수아)
함 안	9월 1일(금) 10:40	일반	오경1(창세기)
호 계	8월 29일(화) 10:00	일반	오경2(탈출기)
창원지구			
가음동	8월 31일(목) 10:00	일반	오경2(탈출기)
대방동	8월 29일(화) 10:00	일반	시서와 지혜서
덕산동	8월 28일(월) 19:30	일반	역사서1
	8월 29일(화) 10:00	일반	루카 복음서·사도행전
	8월 31일(목) 10:50	지혜	역사서4(역대기~)
	8월 30일(수) 10:30	일반	오경1(창세기)
반 송	8월 31일(목) 10:40	은빛	마태오 복음서
	8월 28일(월) 20:00	일반	역사서2
사파동	9월 1일(금) 10:40	일반	가톨릭서간·요한묵시록
	9월 1일(금) 10:40	은빛	욥기와 코헬렛
수 산	9월 1일(금) 10:40	은빛	역사서2
용 잠	8월 30일(수) 19:00	일반	역사서2
중앙동	9월 1일(금) 10:40	일반	마르코 복음서

진주지구			
본 당	개 강 일	과 정	과 목
가좌동	8월 30일(수) 19:30	일반	역사서2
거 창	8월 30일(수) 19:30	일반	시서와 지혜서
금 산	8월 29일(화) 10:00	일반	오경2(탈출기)
남 해	8월 30일(수) 10:30	일반	오경2(탈출기)
사 천	9월 1일(금) 10:40	일반	역사서1
	9월 1일(금) 19:30	일반	역사서1
산 청	8월 30일(수) 10:40	지혜	예언서2
	9월 1일(금) 19:30	일반	역사서2
삼천포	9월 1일(금) 10:30	첫걸음	시서·지혜서와 예언서
	9월 1일(금) 19:30	첫걸음	시서·지혜서와 예언서
상평동	8월 30일(수) 19:30	일반	역사서2
신안동	8월 29일(화) 10:00	일반	시서와 지혜서
옥봉동	8월 30일(수) 19:30	일반	오경1(창세기)
평거동	8월 30일(수) 10:40	은빛	복음서
	8월 31일(목) 20:10	일반	시서와 지혜서
함 양	8월 28일(월) 19:30	일반	시서와 지혜서
거제지구·복지시설			
거 제	9월 1일(금) 10:30	은빛	마태오 복음서
고 현	9월 1일(금) 10:40	일반	오경2(탈출기)
대 건	8월 31일(목) 10:00	일반	역사서1
북산동	8월 31일(목) 10:00	일반	오경2(탈출기)
작은예수회	8월 31일(목) 10:00	은빛	호세아서와 예제키엘서
장 평	8월 31일(목) 10:30	일반	마르코
지세포	8월 30일(수) 19:30	일반	역사서2
태평동	8월 31일(목) 10:30	은빛	호세아서와 예제키엘서
하 청	9월 1일(금) 10:40	일반	역사서1

★ 문 의 : 성경사목부 055·249·7025~6

월남동본당 은총의 샘 Pr. 1,500차 기념 주회



월남동본당(주임: 박창균 시메온 신부) 착한 의견의 어머니 Cu.(단장: 이용길 스테파노) 소속 은총의 샘 Pr.(단장: 고성주 루카)은 7월 20일 1,500차 기념 주회를 가졌다. 은총의 샘 Pr.은 1994년 2월 10일에 설립되어, 현재 8명의 남성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기념 주회에는 본당 사제, 수도자 및 본당 레지오 단원들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와 기쁨을 나누었다.



계약의 궤 이야기 1(1사무 4,1~7,1)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우리는 지난번 순례 때 사무엘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과 탄생, 성장 이야기와 사무엘의 판관직을 서술하는 이야기 사이에는 사무엘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가 섬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1사무 4,1~7,1). 이것이 바로 ‘궤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이야기는 2사무 6장과 함께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1사무 4,1~7,1과 2사무 6장을 연결해서 읽으면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빼앗긴 계약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온 후 다윗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된 과정을 서술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한 덩어리였던 이야기가 사무엘기 안에 포함되면서 2사무 6장은 따로 떨어져서 다윗 임금 시대 때 언급됩니다.

궤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필리스티아인들 사이의 전쟁입니다. 에벤 에제르 부근에서 벌어진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군 사천 명가량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세가 기울자 실로에서 계약의 궤를 모셔오기로 합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가 실로 성소에서 계약의 궤를 전쟁터로 모셔왔습니다. 계약의 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이스라엘은 함성을 질렀고, 이런 상황을 파악한 필리스티아군은 이제는 전쟁에서 졌다고 생각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참패하고 계약의 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호프니와 피느하스는 전사하였고, 계약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마저 놀라서 죽고 말았습니다. 또 피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고 산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계약의 궤 앞에서 춤추는 다윗
얀 드 브레이(Jan de Bray, c.1627~1697)
출처: 성경 미술관(네이버 블로그)

엘리 집안의 이런 비극을 두고 성경의 역사가는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 신탁이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한편, 궤를 빼앗은 필리스티아인들은 주님의 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곧 다곤 신상이 넘어져 부서지는 일이 발생하였고, 또 아스돗의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염병은 선페스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병은 쥐벼룩에 의해 전염되며, 벼룩에 물린 부위에 가까운 림프절이 붓고 아픈 증상이 나타납니다. 2~3일 안에 치료하지 않으면 패혈증으로 사망하고 마는 아주 위험한 전염병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그들은 계약의 궤를 갖으로 옮겼고, 그곳에서도 전염병이 퍼지자 다시 에크론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에서도 전염병이 퍼지자 필리스티아인들은 이 일이 계약의 궤와 연관성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그들을 치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약의 궤를 빼앗은 지 7개월 만에 궤와 함께 보상제물로 금으로 된 종기 다섯 개와 금으로 만든 쥐 다섯 개를 만들어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 지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기에서 필리스티아인들이 만든 종기와 쥐가 바로 이 병이 선페스트임을 알려줍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의 사제들과 점쟁이들은 이 일이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하신 일인지 우연히 발생한 일인지 확신하지 못하였기에 궤를 실은 새 수레를 멍에를 매어 본 적이 없는 어미 소 두 마리가 끌게 합니다. 어미 소는 본능적으로 젖먹이 새끼에게 돌아가려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어미 소들이 젖먹이 새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 지방을 향해 간다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느님이 있음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이 소들은 곧장 이스라엘 지방인 벳 세메스 쪽을 향해 갑니다. 당시에 밀 수확을 하던 벳 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밭에서 멈춘 궤를 보고 기뻐하며 맞이하고, 수레를 끌고 온 소를 잡아 주님께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그것을 보고 필리스티아의 다섯 통치자들은 에크론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의 역사가는 필리스티아 지방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손”이 하신 일임을 일곱 번이나 언급합니다(1사무 5,6.7.9.11; 6,3.5.9). 필리스티아인들이 주님의 궤를 빼앗은 것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무력해서가 아님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계약의 궤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은 것일까요?